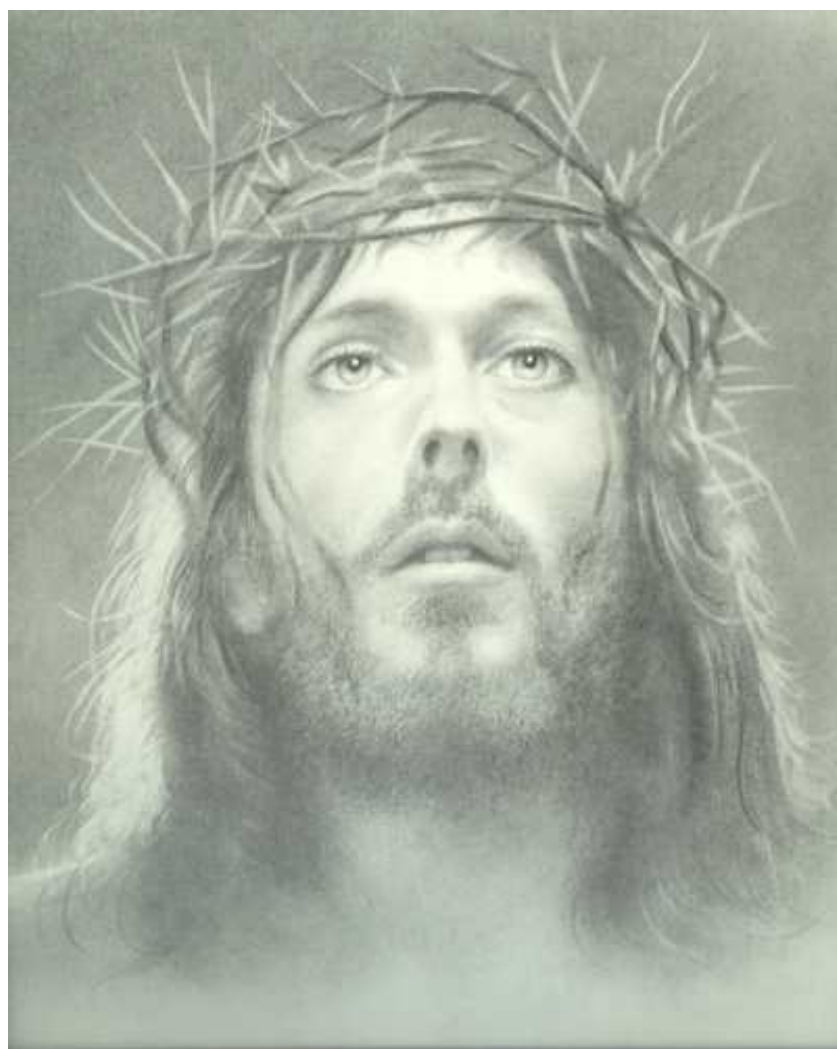


만남

2016 3월
통권 134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님 :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자비의 희년에 바치는 기도	_____	3
신부님 칼럼	+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_____	4
소공동체 모임 자료	주님은 나의 방패(시편 3,2-9) _____	5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129~131 _____	8
기도 소개	거룩한 시간(제녀) _____	13
찬 양	아버지 뜻대로 _____	14
우리들의 이야기	고난 주간의 의미 _____	16
공동체 소식	_____	17
지방 공동체 소식	_____	20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_____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_____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_____	23
미사안내	_____	24

《교황님의 3월 기도지향》

❖ 일반 지향 - 어려운 가정들

어려운 가정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고 그 자녀들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자라도록 기도합시다.

❖ 선교 지향 - 박해받는 그리스도인

신앙 때문에 차별이나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끊임없는 기도 에 힘입어 복음에 충실하도록 기도합시다.

교황님의 권고 기도문(2015.12.8-2016.11.20)

2016년 11월 달까지 미사 전에 바칩니다.

†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자비로워지라고 가르치시며 주님을 본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를 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저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 주소서. 저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님께서는 사랑이 넘치는 눈길로 자캐오와 마태오를 돈의 종살이에서 풀어 주시고,
피조물에서만 기쁨을 찾던 간음한 여인과 막달레나를 구원하셨으며,
베드로가 배반을 한 뒤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참회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나이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듣게 해 주소서.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보이는 얼굴이시며,
용서와 자비로 모든 이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얼굴이시니,

이 세상에서 교회가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의 보이는 얼굴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섬기는 이들도 나약함으로 갈아입고,
무지와 잘못에 빠진 이들과 함께 아파하기를 바라셨으니,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만나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보살핌과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소서.

주님의 영을 보내시고 그 기름을 부어 주시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며,
자비의 희년이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되어, 주님의 교회가 새로운 열정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억압받는 이들과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해 주소서.

자비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사순절(四旬節) 기간입니다.

당신은 사순절(四旬節) 40일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루카 9,23)

사순절 40일은 스승이요 주님이신 예수를 따르는 계절입니다.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가 걸었던 길을 걷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리고 비워야 합니다.

온전히 하느님께 귀의(歸依)하신 예수께서 하늘의 뜻을 따르신 것처럼 철저히 예수께 귀의(歸依)하는 사람이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비우는 사람이 예수께 귀의(歸依)할 수 있고 예수로 충만하게 됩니다.

쫓쫓하게 자기를 고집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의 길을 갑니다.

자신의 욕망을 성취시키고자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고집합니다.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은 스승 예수의 뒤를 따르지 못하고 하늘과도 멀어집니다. 자기 욕망에 충실 하는 사람은 하늘의 소리를 외면하게 되고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당신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사순절(四旬節) 40일이 비우고 버리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또 다른 예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의 사순절이 거듭남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 주님은 나의 방패(시편 3,2-9)

◆ 저번 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한다.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72번 “그리스도의 영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화답송)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가 당신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 주님!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저희는 두려울 것이 없나이다.

◆ 하느님 말씀 (복음 나눔)

(진행자) 한 분이 시편 3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3, 2 주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왜 이리 많습니까?
저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 3 “하느님께서 저자를 구원하실 성싶으냐?”
저를 빈정대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셀라
- 4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를 에워싼 방패,
저의 영광, 저의 머리를 들어 올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 5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해 주시네. 셀라
- 6 나 자리에 누워 잠들었다 깨어남은
주님께서 나를 받쳐 주시기 때문이니
- 7 나를 거슬러 둘러선
수많은 무리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8 일어나소서,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저의 하느님, 정녕 당신께서는 제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수십니다.

9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 백성 위에 당신의 복을 내려 주소서. 셀라

1.(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2.(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3.(진행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나눔)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느꼈던 적이 있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또한 지금 나에게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청하고 싶은 것들을 나누어 봅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소공동체장)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정환경 속에서 생기게 되는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생기게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누군가가 도와주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왜 나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지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

지에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방패를 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에페 6, 16). 우리의 믿음이 유혹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께 의지하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는 하느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순례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줄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주님께 우리들의 구원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자유기도 (진행자) - 영성체 후 : 마음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 사제와의 통교 - 미사 강복 후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72번 “그리스도의 영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교리129

신앙의 목표(14)**14. 베풀**

어느 날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묻는 젊은이에게 예수께서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라고 조언하십니다. (받기위해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나 결국 주는 삶을 얻는다)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마르 10,17-27)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하지 마라’ 라는 구약의 계명으로는 평화 체험 x , ‘-해라’ 라는 신약의 계명)

나누어주고, 남에게 베푸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갑니다. 베풀지 못해서가 아니라 포기할 수 없어서입니다. 부자는 베풀지를 못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져야 베풀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가질수록 베푸는 마음도 줄어드는 이상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가난한 자만이 베풀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역설이지요.

이 역설 때문에 가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아무 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나누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베풀기 위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품을 예로부터 낙시(藥施)라 하였나 봅니다.

놀랍게도 다산 정약용은 이 진리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가난과 절약 그리고 베품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내가 귀양살이를 하면서 늘 수령들을 살펴보았는데, 나를 가련히 여기고 나의 빈한한 삶을 도우려 한 자는 그 의복이 아주 검소하였다. 그러나 화려한 의복에 기름기 흐르는 얼굴을 한 자는 즐겨 놀고 음탕한 생활을 일삼을 뿐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절약할 수 있는 자는 남는 것이 있으니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지만, 절약할 줄 모르는 자는 모자라니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 남용을 하고 어떻게 그 친척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 수 있겠는가. 그러니 절약이야말로 낙시(藥施)의 근본인 것이다.”

가난한 자만이 남에게 베풀고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기를 피하며 묵묵히 자비를 베풀고 이를 즐기는 자만이 천국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영생은 이런 즐거움으로 채워진 삶입니다.

교리 130

신앙의 목표(14)

14. 복음(福音)화

복음화는 온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복음에 따라 살기 운동’을 세상에 펼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당연히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펼칠 수가 없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은 하느님 나라가 이미 고통과 죽음이 다스리고

있는 듯한 이 세상 한 가운데 와 있음을 알려줍니다. 곧,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복음화(福音化)는 ‘아래’를 하늘처럼 받들고, 못나고 가난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대하듯 하는 운동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동참함으로써 자신을 발견하는 운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 19-20) 라며 제자들을 파견하신 것도 모든 민족에게 이 고난의 세례로 초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살아생전에 그분은 물으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마르 10, 38).

그 잔은 하나님의 오른편이나 왼편에서 누리게 될 영광만을 바라는 사람들이나(마르 10, 17), 그것만을 행복과 구원의 전부로 여기는 사람들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잔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여해 달라는 신청서입니다. 복음화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세례에(사랑의 세례에) 동참하는 운동입니다.

그 잔은 남에게 권하기만 하는 잔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마셔야하는 잔입니다.

그 잔은 먼저 내 입술을 거치고 난 후라야 남에게 권할 수 있는 잔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 잔을 먼저 마시고 나서 우리에게 권하셨습니다. 따라서 복음화의 우선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복음을 남에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복음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세하지 않은 비신자, 타종교인만이 아니라 이미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인 나를 포함한 모두가 그리스도의 잔으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지금껏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생각하던 것, 내가 주장하고 고집하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잔은 소유나 편견이나 아집으로는 마실 수 없는 잔이며, 모든 집착을 떠난

사람만이 마실 수 있는 잔입니다.

이 잔을 마심으로 시작하는 복음화는 내 생각을 떠나 남의 생각(남의 문화와 전통, 관습 등)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에서 진정한 것이 됩니다. 복음화는 남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도 활동하시고, 처음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발견하도록 합니다.

사순의 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복음화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사순을 시작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기도하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교리131

신앙의 목표(14)

14. 부활의 증인(證人)

어느 마을에 점점 기울어 가는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수도원을 찾는 성소자가 줄어들고, 기도하러 오는 신자들의 발걸음이 끊기더니 마침내는 다섯 명의 수사님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맥이 풀린 다섯 명의 수사님들은 하루 종일 불만스런 표정으로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수도원장 신부님은 걱정스런 나머지 마을 아래의 본당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수도원장 신부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남은 다섯의 수사들은 서로를 예전처럼 존경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수도원장의 걱정을 듣고 난 본당신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원장신부님께서 이곳을 방문하실 것임을 천사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그 수도원에서 교회에 큰 빛이 될 인물이 나올 것’ 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놀란 수도원장은 부리나케 달려가 이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웃음을 터트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든 다섯 명의 수사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제외한 다른 수사들 중 한 명이 교회에 큰 빛이 될 인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날, 여느 날보다 일찍 잠에서 깬 수사들은 흑 교회에 큰 빛이 될 인물을 위해 방을 청소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시간에 온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열심히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서로에게 특별한 존경심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진심을 다해 예를 갖추었으며 동료들을 바라보는 수사님들의 눈동자에는 깊은 신뢰심과 존경심이 서려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원에서 성스러운 분위기가 흘러 나왔습니다. 다섯 명의 수사님들에게서 나온 깊은 존경심이 수도원 곳곳에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수도원에 들른 마을의 한 형제는 평온하고 고요한 수도원과 수사님들의 진지한 눈빛, 기도하는 발걸음에서 깊은 감동을 느끼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하나, 둘, 사람들은 수도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원은 그 마을의 빛과 영혼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그녀를 통하여 부활의 증인이 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 이제 그들의 삶은 변화됩니다. 내가 변하면 내 옆에 있는 이가 변화되고, 내 옆에 있는 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이고, 그 삶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기억합니다.

커다란 은총으로 우리 성당에 변화를 살고자 하는 신자 분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느님의 초대에 대한 응답의 목소리와 행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활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비안네 신부

거룩한 시간(저녁)

저녁(밤)기도

하느님, 저는 오늘밤 유독 피곤을 느낍니다.
 할 일이 많았는데도 다 하지도 못했습니다.
 서로 치렛말로 하여 자신의 이기심과
 이웃의 이기심을 부풀려 가며
 시간을 낭비했을 뿐입니다.
 터무니없는 짓만 했으니 피곤해지는 건 당연하지요.

기도를 더 많이 했어야 했는데
 마음만 있었다면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더 잘 들어야 했는데
 말을 더 많이 해 버렸습니다.
 제 생각은 당신을 향해 있어야 했는데...
 하루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시간까지 미루지 말고
 한낮부터 당신을 향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
 - 밤도 제법 깊었습니다만 -
 당신께로 향하고픈 제 바람은
 지금 일상생활의 잔해를 넘어
 깊은 심연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신뢰를 받아 주십시오, 주님.
 이제 저는 ‘잠’ 이라고 하는
 짙막한 죽음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175

아버지 뜻대로

현정수 신부

C G⁷ E⁷ Am Dm D G G⁷
 임 은 아 버 지 뜻 따 라 구 원 의 잔을 높 이 올렸 다 네 거룩

Em A Dm Dm⁷ C Dm G Em⁷
 한 주 님 의 부 활 로 - 죄 많 은 나 를 구 원 하 셸 네 십 자

C G⁷ E⁷ Am Dm Dm⁷ Gsus⁴ G
 가 위 에서 흘 리 신 당 신 성 혈 로 잔 을 이 뒀 네 임 의

E E⁷ Am F G⁷ C C⁷
 그 사 랑 나 도 따 라 서 세 상 의 참 사 도 되 리 라 주 여

F G Em Am Dm Dm⁷ Gsus⁴ G E

이 잔을 제게서 거 두 어 주 소 서 그 러나 제 뜻 대로 마 시 고 아 버 지 - 뜻 대 로

Am F Dm⁷ G⁷ E Am

하 소 서 당 신 앞 에 나 아 가 리 라 - - - - 한 말 씀 만 - 하 소 서 내 주 여 내

F G C D.C. Fine

영 원 히 따 - 르 리 라 아 멘

고난주간의 의미.

고난주간이 금식이나 금욕에 대해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 두 끼니의 밥이나 굶는 게 아닙니다.

- ◆비판을 금식하고, 칭찬의 만찬을 즐겨라.
- ◆혈기를 금식하고, 온유함의 만찬을 즐겨라.
- ◆질투를 금식하고, 사랑의 만찬을 즐겨라.
- ◆거짓을 금식하고, 진실의 만찬을 즐겨라.
- ◆자기핑계를 금식하고, 책임의 만찬을 즐겨라.
- ◆불만을 금식하고, 감사의 만찬을 즐겨라.
- ◆이기심을 금식하고, 섬김의 만찬을 즐겨라.
- ◆의심을 금식하고, 믿음의 만찬을 즐겨라.

우리는 이걸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습니다.

먹거리 같은 것의 양이나 기도와 헌금의 금액이 아니라, 진실한 삶의 질과 사랑의 진면목이 문제입니다

먹는 것, 가진 것에 더 이상 초점을 맞추거나 문제 삼지 맙시다.

오늘날 우리 신앙은 비인간적인 것과 비인격적인 것을 먼저 금식해야 합니다.

그러한 성찰과 자각으로부터 근본적인 영적각성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참 의미를 찾는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3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요 안 나	김 주 영	19일	요 셉 (St. Joseph)	이 현 목 곽 케 빈
3일	가 밀 라 (St. Camilla)	허(이)명자			
9일	카타리나	오 경 은			

❖ 3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9일	카타리나 (St. Catharina)	박미량(H)	19일	요 셉 (St. Joseph)	문지서(H) 이재홍(O)
13일	살 롬	현우(H)			

❖ 3월 미사 전례 봉사자 ❖

3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카페 봉 사
6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이경규(안스카) 유곡지(아그네스)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이정수(토마스)	4구역
13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김형웅(야고보) 김정자(젼마)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주일학교 복사단	청년회
20일	김민수(아우구스티노) 박귀동(토마)	배성우(도밍고) 심은희(안나)	주일학교 복사단	요셉 마리아회
27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김동수(시몬) 강신자(벨라데타)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이정수(토마스) 곽케빈(요셉) 이현목(요셉)	1구역

❖ 3월 성가번호

3월	입 당	봉 헌	마 침
6일	119	220	280
13일	118	340	121
20일	75	219	125
27일	131	342	130

❖ 세상을 떠난 교우를 생각합니다. ❖

3월 19일	⊕박기옥(요세파)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3월 22일	⊕박춘식(니콜라오)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1월 24일	1월 31일	2월 7일	2월 14일	2월 21일
계(€)	262.18	235.10	303.42	212.80	198.91

❖ 자진헌납금 ❖

2016년 1.18 — 2016년 2.21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김기연, 김형웅, 이수웅, 이석우, 권지연, 배성우, 우동천, 이기열, 한선지, 이경규,
이종하, 김민수, 이현묵, 이정수, 현영애, 박귀동, 손수희, 이공중, 육종인, 박성아,
진윤희, 최장용, 강순행,

구좌입금 :

강일남, 김대현, 김치수, 남궁 춘배, 최화영, 최현봉, 홍경영, 허두욱, 허길조, 서유미,
곽케빈, 이성원, 이상봉, 김서예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회장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1월부터 자비의 희년에 바치는 기도가 교황님의 권고에 따라 바쳐집니다. **일시 : 2015.12.8 - 2016.11.20**
2. 3월 4일(금) - 6일(주일)은 교환사목 기간입니다. 주임 신부님께서는 쾰른 본당으로 가시고, 우리 공동체에는 프랑크푸르트 본당, 최용준(안토니오) 신부님께서 오십니다.
3. 3월 달 ‘복음 나누기 기도회’는 교환사목으로 인해 3월 18일(금)요일로 변경되어집니다.
4. 예비자 김보경 자매님, 김경미 자매님, 김 건 형제님, 노하빈 자매님, 이희자 자매님께서 하느님의 아름다운 도구 되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길 청합니다. 세례는 이번 부활절(3월 27일)입니다.
5.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도움을 주시길 청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함부르크 교구와 함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6. 3월 24일(목)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는 주교좌 본당(DOM)에서 19:00에 봉헌되어집니다.
7. 3월 25일(금) 주님 성금요일 수난예식은 예수 성심 성당에서 15:00에 봉헌되어집니다.
8. 장소 문제로 인해서 이번 부활성야 미사는 따로 봉헌되어지지 않습니다. 각 지역 본당에서 봉헌하시길 바랍니다.
9. 3월 29일(화) 19:00 미사는 아치에스 행사가 있습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브레멘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 / 2431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하노버 공동체에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소공동체 기도 모임을 안토니오 성당에서 갖습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2월 기도로모임으로 2월 24일(수요일) 오후 4시 St. Johan 성당에서 사순절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2. 새해부터 공동체 회장직 봉사를 노금순 데레사 자매님이 맡게 됩니다. 많은 기도와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집전화 : 0541- 5062637)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최 영 숙 데 레 사	040/ 3742 0006 0157 5012 6332
구 역 장 모 임		공지 시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구 역 분과장	회 장 단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이 선 주 로 사	0176 7636 2699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0152 0448 7382
예 비 자 교 리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공 석	대리 - 본당회장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공 석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김 영 희 클라우디아	040/ 532 4138 0177 724 6335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 매 자 베로니카	8509768	
			총 무	김 정 숙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이 영 희 체칠리아	5277854	
		3구역	구역장	이 현 목 요 셉	6011594	
			총 무	이 경 규 안스카	6045311	
		4구역	구역장	문 경 영 아가다	20971988	
			총 무	공 석		
청년부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부회장	서 유 미 레지나	0176 2491 0077	
요셉, 마리아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반 장	심 은 희 안나	0157 8045 2206	

3 월 중 행 사 예 정 표

(성 요 셉 성 월)

일	요일	축 일	단체행사	비 고
1	화	삼일절		
2	수			
3	목			
4	금		교환사목 - 프랑크푸르트 최용준 안토니오 신부	주임 신부님 - 쾰른 본당 (브레멘 공동체)
5	토	경칩		
6	일	사순 제4주일		
7	월			
8	화			
9	수			
10	목			
11	금		2구역 소공동체	
12	토			오스나브뤽 공동체
13	일	사순 제5주일	사목협의회, 청년 소공동체	
14	월	순교자 윤봉문 요셉 치명일(1888년)		
15	화			
16	수		요셉 마리아회 소공동체	
17	목			
18	금		복음 나누기 기도회	16:30
19	토	한국 교회의 공동 수호자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하노버 공동체
20	일	주님 수난 성지주일		
21	월			
22	화			
23	수			
24	목	주님 만찬 성목요일	주교좌 본당(DOM 미사) 19:00	한국어 복음 및 보편지향기도
25	금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예수 성심 성당 - 수난예식 15:00	
26	토	부활성야	미사 없음	장소관계
27	일	예수 부활 대축일	세례식	
28	월	부활 팔일 축제 내 월요일		
29	화	부활 팔일 축제 내 화요일	아치에스	꾸리아 주관
30	수	부활 팔일 축제 내 수요일		
31	목	부활 팔일 축제 내 목요일 순교자 신석복 마르코 치명일(1866년)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목회장 최 영 숙 데 레 사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발 행 인	최 종 태 요한마리아비안네 본당신부님	viannae@hanmail.net H.P : 0176 8464 7981
편 집 인	남궁춘배 바로톨로메오	cbnamgoong@hanmail.net H.P : 0151 2341 2732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시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각 소공동체 17시 30분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테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 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

H.P : 0157 5447792